

「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」 운영 및 지원 방안

2020. 7.

I. 추진경과	1
II. SPV 운영 방안	2
III. SPV 매입지원 방안	3
【참고】 기업유동성지원기구 관련 FAQ	5

관 계 기 관 합 동

I. 추진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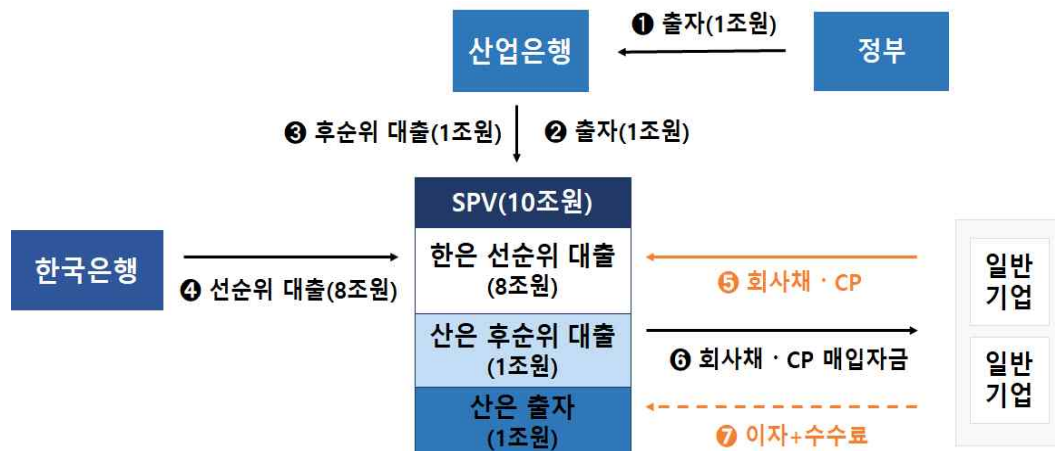
① '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' 설립방안 발표

- 정부-한국은행-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, 자금시장 경색 차단 등을 위한 **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** 도입방안을 발표

* 4.22일, 제5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→ 5.20일,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의결

- **재정-중앙은행-정책금융기관**이 **협업**하여 위기대응모형을 마련

* 역할분담 : [정부] 위험흡수 자원 지원 [한은] 유동성 공급 [산은] SPV 운영



②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산업은행의 先매입 지원 실시

- **3차 추경안**에 정부의 산은 출자(1조원)이 편성되었으며, 7.3일 국회 통과 (→7월말 산은 출자 예정)
- 산은은 SPV 설립에 앞서, 비우량채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**선매입** 실시 (→5.20일 이후 총 3천억원 내외 비우량채 매입)

③ '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' 설립 및 재원조달

- 산은은 **SPV**를 설립('기업유동성지원기구', 7.14일자)하였으며, 한은 금통위는 SPV에 대한 **선순위대출**을 의결(8조원, 7.17일)

Ⅱ. 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 운영 방안

1

SPV 조성 규모

- ☐ 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의 재원은 **총 10조원**까지 조달
 - ①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SPV 출자(1조원), ②산은의 후순위 대출(1조원), ③한은의 선순위 대출(8조원)로 재원 조성
- ☐ SPV는 10조원 규모로 운용하되, 시장 여건, SPV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

2

SPV 운영 기간

- ☐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SPV 설립후 **6개월간 증권 매입**(‘20.7.14일~’21.1.13일)
 - * 매입기간 종료 시점에 6개월간 운영성과,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기간 연장여부 결정
- ☐ SPV는 설립일로부터 **4년간 운영***(‘20.7.14일~’24.7.13일)
 - * 매입기간 6개월 → 자산보유기간 3년 → 청산기간 6개월

3

SPV 운영 구조

- ☐ SPV(상법상 유한회사)의 **이사회**에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 수행
 -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**투자관리위원회***를 두어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지원
 - * 투자관리위원회(총 5인, 위원장 호선) : 기재부·금융위·한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인, 산은이 추천(여타기관 동의 要)하는 민간전문가 1인, 산은 부행장으로 구성
- ☐ 투자대상 선별, 투자 등 업무는 SPV가 산은에 위탁하여 수행

Ⅲ. 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 매입지원 방안

1

매입대상증권 유형

- (발행기업)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,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, **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·CP**를 중심으로 매입

※ 매입 제외 대상

- ① **금융회사 발행 회사채·CP** → 매입대상에서 제외*

*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,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

- 다만, **여전사 회사채·CP**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**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여력 확보, 여전채 시장 안정** 등을 위해 필요시 여타 프로그램에 준하여 매입

- ② **금융회사 채무보증 PF-ABCP** → 매입대상에서 제외*

*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既가동중

- **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% 이하 기업**은 매입대상 제외*

*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 감안

- (신용등급) 투자등급 회사채·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, **비우량채(A~BBB등급)** 중심으로 매입

- **투기등급(BB등급)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(→fallen angel)**도 매입대상에 포함

* SPV의 지원대상인 fallen angel : 코로나19 영향 前까지 투자등급이었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후 투기등급(BB등급)으로 하락한 기업

		회사채	CP	채안펀드	국책은행 차환·매입지원	회사채 신속인수 ³⁾	P-CBO ³⁾	SPV
투자 등급	우량	AA	A1	●	●	-	●	●
	비우량	A	A2	제한적 매입 ¹⁾	●	●	●	●
		BBB	A3	-	-	●	●	●
투기 등급	투기	BB	B	-	-	-	제한적 매입	제한적 매입 ²⁾

1) 여전채,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(fallen angel)은 A+등급까지 가능(회사채에 한정)

2)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(fallen angel)은 BB-등급까지 가능(회사채에 한정)

3) 회사채 대상

- ☐ (만기) 회사채는 만기 3년 이내, CP·단기사채는 만기 3~6개월인 경우 SPV에서 매입 지원
- ☐ (차환가능 여부) 회사채는 차환불가, CP·단기사채는 SPV가 해당 CP를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(만기일 기준)까지 차환가능

2

증권 매입방식

- ☐ (회사채)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매입하고,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매매각 물량을 SPV가 매입

* 필요시, 비우량 회사채 매입 지원시에도 수요예측시스템 참여 가능

- ☐ (CP·단기사채) SPV가 발행CP를 매입

3

증권 매입가격

- ☐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,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매입

1. SPV의 재원조성 스케줄은?

☐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*(출자 1조원 + 대출 2조원)로 조성하고,

* 3조원 =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+ 산은·한은 대출액 2조원
(2조원은 "산은 후순위 대출 : 한은 선순위 대출 = 1:8"의 비중으로 대출)

○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

2. SPV의 매입 대상에 금융회사 발행물도 포함되는가?

☐ SPV는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대상으로 매입

☐ 금융회사 발행물, 금융회사가 채무보증한 PF-ABCP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나,

○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·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

☐ 다만, 여전사 발행물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,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타 금융지원 프로그램(채안펀드, P-CBO)에 준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

3. SPV의 회사채·CP 매입 개시 시점은?

☐ SPV는 7월24일부터 회사채, CP 등 매입을 개시할 예정

4. SPV의 신용등급별 매입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?

☐ 비우량채 만기도래 규모, 수급보완 필요성, SPV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운용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,

○ 정부-한은-산은 등 유관기관이 협의를 거쳐 SPV의 신용등급별 적정 매입 비중을 설정*

* 포트폴리오 비중을 우량채 30%, 비우량채 70% 수준으로 관리
([우량채] AA등급 30% [비우량채] A등급 55% + BBB등급 이하 15%)

☐ 동 매입 비중은 SPV 투자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며,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

5.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?

☐ 신용평가회사간 등급 불일치 발생시, 낮은 신용등급 적용

6. 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는 유통물도 매입하는가?

☐ SPV는 원칙적으로 발행물을 중심으로 매입할 계획

○ 다만,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통물 매입 가능

7. SPV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?

- ☐ 최근 들어 우량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, 비우량채 투자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

* 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(% , '19.6월 → '20.6월) :
[AA이상] 357.9 → 333.7 [A] 477.2 → 232.1 (BBB이하) 353.3 → 178.0

- 코로나19로 직접 영향을 받은 비우량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 우려 등이 상존
 - 신용등급 하락,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기업도 증가
- ☐ SPV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할 경우,
 - 비우량채 발행여건 개선,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, fallen angel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자금시장 불안소지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아울러, 코로나19 지속으로 시장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, 자금시장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 가능

8. SPV 지원 관련 문의처

- ☐ SPV 및 산업은행 대표 이메일로 문의 : spv@kdb.co.kr